인터넷 바다를 적신 시·소설

‘문학 웹진’ 전성시대

〈문태준〉

〈천운영〉

〈은희경〉

〈이기호〉

인터넷 소설 연재의 활성화와 맞물려 인터넷 문학 웹진도 활기를 띠고 있다. 향긋한 문학에 취하고 싶다면 관련 정보가 풍부하고, 주인공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정통문학 사이트를 찾아 클릭해보자.

지난해에 ‘문학웹진 뿔’(http : //blog.aladdin.co.kr/ppul)과 ‘문화웹진 나비’(http : nabeeya.yes24.com/)가 잇따라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문학과지성사도 ‘웹진 문지’(http : //webzine.moonji.com)를 창간했고 창비도 조만간 웹진 형식의 블로그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들 웹진은 수준 높은 문학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종이 매체를 통해서는 쉽지 않았던 독자들과의 쌍방향 소통도 활발히 시도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주요 콘텐츠는 무엇보다 신작 소설과 시. 문학과지성사가 ‘문학과 인문학의 창의적 플랫폼’을 표방하며 문을 연 ‘웹진 문지’의 경우 김태용과 이홍, 백가흠의 장편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창간호를 통해 이기호의 단편소설과 강정, 김혜순, 김광규의 시를 선보이는 등 신작 단편소설과 시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

문학동네와 생각의나무, 자음과모음 등 일곱 개 출판사가 함께 만든 문화웹진 ‘나비’의 경우도 강영숙, 최인석, 김다은의 장편이 연재 중이다.

문학에디션 뿔이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함께 문을 연 ‘문학웹진 뿔’에서는 전아리, 배지영, 이신조, 박금산, 서준환 등의 소설을 만날 수 있다.

‘웹진’의 형태는 아니지만 문학동네는

독자들 주인공되어 참여
작가들과 소통에 인기
출판사들 속속 오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은희경의 신작 장편소설을 연재하고 있으며 내달 초 문을 열 창비 블로그에는 ‘잘가라, 서커스’로 알려진 천운영의 장편소설이 연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5년 일찌감치 문을 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장 웹진’에도 매달 여러 편의 신작 소설과 시가 발표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장점을 살려 작가들이 육성으로 작품을 낭독한 오디오 파일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문학집배원’코너는 은희경, 문태준 작가가 선별한 ‘시’와 ‘문장’을 움직이는 이미지 플래시로 제작해 e메일로 독자들에게 매주 2회씩 제공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웹진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은 단순히 작가가 올린 작품을 읽고 독자들이 댓글을 다는 것을 넘어선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웹진 나비’의 경우 기성 작가의 문학작품이나 명사들의 칼럼 외에 네티즌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나는 나비 2.0’이라는 코너를 통해 네티즌들의 ‘손바닥 소설’이나 ‘한 줄 이야기’, ‘리뷰’를 공모해 정기적으로 우수작을 선정하고 있다.

500자 가량의 압축 단편을 올리는 ‘손바닥 소설’ 게시판에는 한 달에 20~30여 편의 네티즌 작품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수작들에 대해서는 문학평론가들의 심사평도 곁들여져 독자들의 호응이 높다.

‘웹진 나비’는 미등단 신인들을 위한 제1회 나비문학상도 공모해 내달 첫 수상자를 낼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묵향에 담긴 ‘이병철의 정신’

호암탄생 100돌 기념전
신세계 갤러리 8일까지

‘겸허’

호암(湖巖) 이병철(1910~1987년) 삼성그룹 창업회장의 탄생 100주년(2월 12일)을 맞아 그의 경영 철학과 경영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서예전이 열린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2~8일 호암이 생전에 썼던 서예작품 31점과 유품을 전시하는 ‘묵향(墨香)에 담긴 호암의 정신’전을 연다.

그는 평소 집무실에 지필묵을 갖춰놓고, 하루의 일과를 서예작업으로 시작할 만큼 서예에 열성을 가졌으며 송천 정하건을 비롯한 서예가로부터 꾸준히 지도를 받았다.

이번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작품은 그가 회사를 세우고 키우는 데 바탕이 된 경영철학과 방침, 가족과 후배들에게 전하는 애정을 담은 교훈적 내용이 담겼다.

주로 논어와 같은 경서나 고사에서 따온 글귀이며 고객제일(顧客第一), 기업제민(企業濟民·기업경영을 통해 널리 사람들에게 베풀다) 등 남다른 기업관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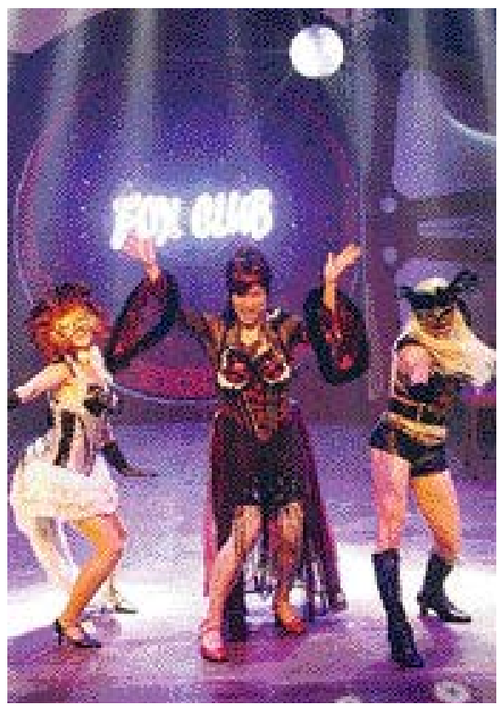
또 경청(傾聽), 겸허(謙虛) 등 생활철학을 보여주는 작품과 그가 생전 사용하던 붓, 벼루 등의 유품이 전시된다.

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시대를 앞서간 기업가, 국가와 민족을 고민한 지식인, 멋을 이해한 문화인, 인재를 아끼고 인륜을 중시한 호암과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깨져버린 사랑… 다시 꺼내 본 그녀와의 추억

뮤지컬 ‘두드림 러브’ 공연
유·스퀘어문화관서 21일까지



이제는 깨져 버린 사랑이라 고 생각하는 주인공. 하지만 다시 꺼내 본 그녀와의 추억은 그에게 ‘사랑은 계속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로맨틱 뮤지컬 ‘두드림 러브’가 오는 21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 아트홀에서 장기공연중이다.

8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국 수희와 이혼을 선택한 명훈은 어느날 ‘영원한 망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억의 극장’을 찾게된다. 그는 그곳에서 관람료 대신 ‘사랑의 기억’을 하나씩 끄집어내 고교시절 첫만남부터 추억의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한번 불러낸 추억들은 다시는 기억될 수 없는데….

‘두드림 러브’는 ‘김종욱 찾기’, ‘뮤직 인 마이 하트’ 등 인기 로맨틱 뮤지컬의 공식을 충실히 이행하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코끝 찡한 감동이 있고, 유쾌한 웃음이 있다. 특히 소극장용 작품이 광주를 찾을 경우 대극장에서 상연되면서 그 ‘맛’을 살리지 못하는데 반해 이번 작품은 소극장 공연으로 관객의 집중력을 높인다.

초반에 다소 산만하던 작품은 극이 전개될수록 점점 몰입도를 높인다. 명훈의 추억을 따라 과거로 여행을 떠나 그들의 티격태격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고, 자꾸만 엇갈리는 현재의 명훈과 수희에게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출연배우는 다섯명에 불과하지만 수십가지 캐릭터로 변신하며 유쾌한 웃음을 준다. 가장 재미를 주는 건 게이 가수 등 다양한 역할로 변신하는 멀티맨. 앙상블 역시 다양한 캐릭터로 웃음을 준다.

‘형제는 용감했다’ ‘싱글즈’의 장소영씨가 참여한 뮤지컬 넘버 역시 귀에 쏙쏙 박힌다. 특히 자주 등장하는 ‘결혼축가’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탄탄한 연기력에 비해 배우들의 노래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아쉽다. 티켓 가격 4만원. 커플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http : //cafe.daum.net/goodfeeltheater. 문의 1544-50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8산사순례’ 마음을 찾다

장성 백양사 3천여 佛子 참여 기도회

전국의 산사를 찾아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묵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사진〉가 지난달 25~27일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스님)에서 열렸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의 주창으로 매달 한 차례씩 전국 108개 사찰을 순례하며 기도를 올리는 행사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3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이번 행사에서 혜자 스님은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108산사를 찾아 108불공을 올리며, 108선행을 통해 108공덕을 짓고, 108배를 하며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염주를 만들어 인연을 쌓아가는 모임”이라며 “경인년 새해를 맞아 그 시작을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열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순례기도회 기간 동안 농협 전남지역본부 주관으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다문화 여성 농업인 인연 맺기 행사를 가졌다. 결연식에서는 레티미쿠엔(여·25·베트남출신·장성군 북하면)씨를 비롯해 3명의 다문화 가정이 순례기도회에 참석한 불자 3명과 현장에서 모녀의 인연을 맺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